



도덕적 불감증
바우만·돈스키스 지음

유동적 세계에서 감수성 일깨우기

유동적 세계에서 악은 사람들이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압박 속에서 행동해야만 하는 상황에 한정되지 않는다. 오늘날 악은 고전적인 악의 개념과는 다소 변별된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 일상적으로 무감각할 때 타인을 이해하지 못할 때, 타인에 대한 이해를 거부할 때 발생한다.

‘현재 유럽 사상의 최고봉’으로 불리는 지그문트 바우만과 ‘유랑하는 학자’ 레오니 다스 돈스키스가 펴낸 ‘도덕적 불감증’은 유동적 세계에서 잃어버린 인간의 소중한 감수성을 이야기한다. 바우만은 오늘날의 세계를 “기존 삶의 모든 견고한 기준들이 녹아 사라지고, 불안이라는 공통의 감수성이 표류하는 유동적 세계”로 해석한다. 돈스키스는 우리 안의 악과 모든 것이 TV쇼와 기업을 덮어버린 정치와 대학의 위기, ‘네트워크’라는 가상의 연대에 대해 메시지를 이끈다. 이들은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기 위해 반응하는 감수성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읽는 수요일·1만6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레드 라이징
피어스 브라운 지음

미래 화성 배경 SF소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이자 아마존 이달의 책으로 선정되었던 ‘레드 라이징’이 출간되었다. 미 상원의원 보좌관 출신 피어스 브라운이 펴낸 ‘레드 라이징’은 색으로 계급이 나뉘어져 있는 미래 화성을 배경으로 한 SF소설이다.

소설은 최하층 계급인 ‘레드’의 주인공이 걷는 혁명적인 경로를 따라 펼쳐진다. 주인공 소년은 가혹한 운명에 휘말리며 자신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소사이터의 진실에 깨닫게 되고 지배층인 ‘골드’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겪는 교육 기관 내의 잔혹한 적자생존 이야기는 야만과 문명의 이중성에 대한 묘사를 읽힌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빠른 이야기 전개와 섬세한 필력은 눈앞에서 영상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출간과 동시 영화계의 주목을 받은 이 작품은 영화사들의 극한 경쟁 속에서 영화화로 진행되고 있다.

<황금가지·1만58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윌리엄 아돌프 부그로 작 ‘젖은 큐피드’

명화 속 누드로 보는 사랑의 문화사

관능 미술사

이케가미 히데히로 지음



“여성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아주 거칠게 끌어당겨 입술을 훑으려는 한 남자가 있다. 여자는 몸을 비틀며 뜨거운 포옹에서 벗어나려 하면서도 남자의 얼굴을 밀치는 손에 그다지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개개풀린 눈동자는 상대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다. 다른 그림에는 여성을 몹시 거칠게 끌어안은 아주 험한 남자가 있다. 여성의 웃음 흐트러지고 가슴이 드러나 있다. 얼굴에는 갑작스러운 일을 당한 듯한 놀라움과 두려움이 드러나지만 단순히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것만은 아닌, 뭔가 난감한 표정이 감돈다.” <머리맡 중에서>

미술의 세계는 신비하다. 특히 사랑을 주제로 한 화풍은 그렇다. 화가들은 오랫동안 사랑을 다루어왔다. 인류의 오랜

관심사였고 앞으로도 영원한 주제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렘브란트를 ‘야경(夜驚)’을 그린 대화가로 기억한다. ‘빛의 화가’인 그는 유럽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 가운데 한명이다. 그런 그가 남녀의 섹스 같은 은밀한 주제도 많이 다뤘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르네상스시대 전인적인 인간으로 꼽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일 뿐 아니라 조각가, 시인, 음악가, 과학자이기도 했다. 그가 그린 해부도 중 성교 중인 남녀를 그린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다.

고상할 것 같은, 아니 문예주의에 천착한 그들도 ‘사랑’에 적잖은 관심이 있었다. 물론 예로적인 사랑이다. 사실주의의 창시자 쿠르베는 포르노그래피나 레즈비언이라는 새로운 주제에 탐닉했다.

예술 작품 속 누드로 보는 인류의 사랑과 욕망을 문화사로 풀어낸 책이 출간됐다. 에로스의 시작과 끝, 비너스부터 포르노그래피까지를 망라한 책은 성에(관능)을 다각도로 풀어낸다.

미술사가이자 도쿄조형대학 종교수인 이케가미 히데히로가 쓴 ‘관능 미술사’는 서양 미술사에 드러워진 인간의 내밀한 욕망을 들여다본다.

비너스는 그리스 로마신화를 근간으로 하는 서양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신으로 꼽힌다. 책에는 미의 기원 비너스로 시작해, 르네상스기의 퇴폐와 향락, 동성애, 불륜 등의 다양한 사랑의 형태가 등장한다. 그뿐인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장면 등도 분석의 대상이다.

물론 사랑의 아름다운 측면도 고찰하고 있지만 속물적이고 기능적인 양상에 좀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고대 이집트 시기에 그려진 정사 장면, 폼페이 유적의 침실에서 발견된 성교 그림 등 미술은 시공을 초월해 인류의 침실에 등장한다.

16세기 로마에서는 성교 채워 장면을 그려 출간한 책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모디’라고 제목이 붙여진 책은 이탈리아로 ‘체위’라는 뜻이다. 마르칸토니오 라이몬디가 화가 줄리오 로마노의 밑그림에서 기초해 16가지 채워 장면을 그려 출간한 것이다. 이 책은 후세 사람들의 욕망에 힘입어 지금까지도 전해진다.

‘관능 미술사’는 이처럼 다채로운 그림에 담긴 수수께끼를 토대로 인간의 사랑과 욕망을 의미있게 풀어낸다.

“이러한 관능적인 작품들은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 집적된, 다양한 모습의 사랑에 관한 역사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사랑을 구하고, 사랑에 기뻐하고, 사랑을 탐구하며 사랑에 슬퍼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한다.”

<현암사·1만6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도스토예프스키 여정 좇아 자유의 본질 탐색



자유
도스토예프스키에게 배운다
석영중 지음

도스토예프스키는 러시아 작가들 중에서 자유에 관해 가장 많이 그리고 끈질기게 고민했던 작가다. 자유는 그의 모든 작품을 하나로 연결하는 끈이나 다름없다. 물론 그가 책상 앞에 앉아서 추상적으로 자유를 사색한 것은 아니다. 그는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발목에 족쇄를 찬 채 사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자유의 부재가 인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필진하게 경험했다. 과연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자유란 무엇인가. 고려대 노어노문학과 석영중 교수가 펴낸 ‘자유 도스토예프스키에게 배운다’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여정을 좇아 가며 자유의 본질을 탐색한다. 저자는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자유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본다. 하나는 본능으로서의 자유이며, 또 하나는 ‘자유 욕’과는 정반대되는 어떤 것. 다시 말해 본능의 극복과 최고의 도덕적 상태를 향한 지행이다. 전자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본능으로 식욕이나 성욕을 말한다면 후자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거쳐 사랑과 용서, 이해와 인정, 나눔과 배움의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자유를 삶에서辨

만 아니라 소설에서도 끈질기게 천착했다. ‘죄와 벌’에도 자유의 문제는 스토리의 핵심을 차지한다. 가난한 주인공 라스콜리코프는 부자를 죽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생각을 품고 살인을 저지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자유에의 욕망이 깃들여 있었다. 그가 자유를 찾으려면 자아의 감옥에서 나와 ‘광장’으로 나가야 한다. 그는 자아와 세계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고 삶의 인연을 찾아야 한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다.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마음의 감옥에서 나와 광장으로 가야 한다. 광장은 마음의 열리고 마음과 마음의 연결이자 회복이다. <예담·1만7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삶의 현장에서 터득한 글쓰기 노하우 등 담겨



여행자가 수업
이지상 지음

“여행은 돌아다니는 것이지만 글은 고독하게 앉아서 쓰는 것이다.” 여행하면서 쓰고, 쓰면서 자유를 찾는 30년차 여행자가 이지상의 글쓰기 강의노트 ‘여행자가 수업’이 나왔다. 책은 전 세계 삶의 현장에서 몸소 겪으며 터득한 글쓰기 노하우, 치열하게 한 길을 걸어온 한 인간으로서의

철학과 여행작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전하는 조언이 담겨 있다. 저자는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문제를 넘어서 언어에 대한 고찰, 기록과 취재의 필요성, 출간 과정, 홍보, 유통, 표절과 인용의 문제, 독립출판, 전자출판, 여행자의 트렌드, 여행작가의 삶 등을 다룬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언어학·철학·사회학적인 지식을 빌려와 풀어내고 있다. 1부에서는 여행 글쓰기법, 2부에서는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세세하게 소개하고 3부에서는 여행작가로서의 세계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짧은 에세이를 담았다. <엔트리·1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p>남</p> <p>의사, 변호사, 의사, 변호사 27~45세 편사, 감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p>	<p>여</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p>	<p>남</p> <p>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술신 여성' 희망 31~58세</p> <p>여</p> <p>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6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휘닉스빌딩 B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기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신(D) 대산프리모